

UNICEF 조사 결과로 본 북한 민생 실태

Online Series

2018. 07. 19. | CO 18-32

홍 제 환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근 UNICEF는 2009년 이후 8년 만에 북한에서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 영유아 영양 상태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 내 식량 생산 증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안정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빠르게 개선되긴 했지만,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취약 지역·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외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민생 관련 통계를 담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 민생 연구 및 민생 관련 남북협력 방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 주민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할까. 나아졌다면 얼마나 나아진 것일까. 북한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자료도 대부분 평양이나 북중 접경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담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중앙통계국이 UNICEF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전국의 8,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MICS) 결과는 북한 민생 관련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¹⁾

2017 MICS의 의의와 특징

MICS는 UNICEF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정부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생 관련 조사로, 북한에서는 1998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2017년 네 번째로 실시되었다. MICS 보고서는 북한 전국의 충분히 큰 규모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 어린이 및 가임기 여성 건강을 비롯하여 민생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북한 민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17 MICS 보고서는 과거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내용이 매우 풍부해졌다. 인터넷·컴퓨터·휴대폰 사용 여부, 영유아 사망률 등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져, 조사 지표가 2009년 55개에서 117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 등이 조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09년 조사에는 포함되었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빠진 항목도 있는데, 출생등록률, 에이즈(HIV/AIDS) 관련 문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까닭에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 MICS 보고서는 각 지표의 통계를 제시할 때, 재산수준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저체중 출산 지표를 예로 들면, 2009년 보고서에서는 출생 지역, 산모의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만 제시했는데, 2017년에는 그와 함께 재산수준별 통계도 제시했다. 이처럼 각 지표별로 제시된 재산수준별 통계는 향후 북한 내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7 MICS에서 가구 특성에 대한 조사가 예전에 비해 상세히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재산수준별 분석과 관련 있어 보인다. 재산수준별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별 재산수준을 파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 가구 특성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1) 2017 북한 MICS 보고서는 UNICEF MICS 홈페이지(<http://mics.unicef.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별 방의 개수, 인터넷 접근 가능 여부, 텔레비전·냉장고·전기밥솥 등의 보유 여부, 농지·가축 소유 여부, 자동차·오토바이·컴퓨터·휴대폰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다.

참고로 재산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통계들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관련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체 조사대상 중 53.7%의 가구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텔레비전은 98.2%, 냉장고는 30.3%, 전기밥솥은 62.6%, 휴대폰은 69.0%, 컴퓨터는 18.7%의 가구에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양도 5.2%로 그리 높지 않았다.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

2017 MICS 보고서에는 100여 개의 지표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민생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며,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인 5세 미만 영유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에 관한 통계를 중심으로 북한 민생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²⁾

만성 영양부족은 연령에 비해 성장이 과도하게 더딘 상태를 지칭하며, 영유아가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조사는 조사원이 영유아의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 북한 5세 미만 영유아 중 만성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영유아의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MICS 또는 WFP(세계식량계획), FAO(식량농업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를 통해 산출된 이 비율이 1998년 62.3%, 2004년 37.0%, 2009년 32.4%, 2012년 27.9%로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장기에 걸쳐 빠르게 개선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 결과 현재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영유아 만성영양부족 비율을 보면, 방글라데시 36.1%, 캄보디아

2)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2018년 12월 발간 예정인 홍제환·김석진·정은미, 『북한 민생 실태 및 지원협력 방안 연구』(통일연구원)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32.4%, 인도 38.4%, 미얀마 29.4%, 필리핀 33.4%, 스리랑카 17.3% 등으로 대체로 북한보다 높다.³⁾ 세계은행 통계를 보더라도, 북한의 영유아 만성영양부족 비율은 2017년 기준 저소득 국가(35.2%)나 중·저소득 국가(31.5%)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첫째,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왜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우선 식량 공급량의 빠른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일단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식량 공급량 증가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식량 지원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상업적 식량 수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식량 수입 역시 공급량 증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식량 공급량 증가는 북한 내 식량 증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북한 농업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FAO의 곡물생산량 통계를 이용, 북한의 1인당 곡물생산량을 구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에 대한 검토 결과는 식량 증산 속도가 보다 더 빨랐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개인농사의 양적·질적 성장이 농업 통계 산출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북한 내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주식용 곡물 이외의 기타 식품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농업 통계와 민생 실태의 괴리를 낳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량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중·저소득 국가보다도 좋은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영유아의 영양 상태에는 식량 외에도 산모의 영양상태, 질병, 위생, 수질, 수유, 여성 지위, 돌봄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식량 공급량 증가가 영유아 영양 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육, 보건 등을 중시해 온 만큼,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이러한

3)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는 2014년, 인도, 미얀마, 필리핀은 2015년, 스리랑카는 2016년 조사가 이루어졌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된 것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식량 공급량이 증가하자, 시너지 효과가 발생, 다른 국가에 비해 식량 증산에 따른 영양상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민생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물음은,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면 이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 없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가 여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낫다고 해도, 다섯 명 중 한 명이 만성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는 한국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영유아기의 만성 영양부족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영유아기의 만성 영양부족은 영유아기 사망률, 유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장, 인지능력, 학습능력, 생산성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만성 영양부족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 계층, 취약 지역에 대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7 MICS 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은 양강도 지역(31.8%)에서 유난히 높아, 평양(10.1%)의 3배, 그 외의 지역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산 기준 하위 20%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은 27.0%로, 상위 40% 비율 13.9%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해 북한 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쏟거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면의 제약 상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중심으로 북한 민생 실태를 살펴보았지만, 이는 2017 북한 MICS 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는 모성 건강, 영유아 건강·영양 및 발달, 교육, 생활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으며, 각각의 조사 결과는 북한 민생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전에 세 차례 실시된 MICS 결과, 2002년, 2004년, 2012년 실시된 영양조사 결과,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 등과 이 자료를 결합하면, 짧게는 김정은 시대, 길게는 20년간 북한 민생의 변화상을 그려내고, 북한 민생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내는 것도 가능하다. 2017 북한 MICS 보고서가 북한 민생 실태 및 변화상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민생 관련 남북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